

고교 입학 전형 본격 시작

광주 내년 2월 4일 학교 배정...전남은 2월 1일

광주의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 전형이 13일 원서교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시 일정에 들어간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지방 학교를 두 번 지원할 수 있다.

2008학년도 광주 인문계 고교 모집 인원은 1만6천572명(가배정)으로, 내년 3월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신설되는 서구 유일의 여자고등학교 상설 여고(12개 반 477명) 입학생도 포함됐다.

고입 대상 학생들은 13~26일까지

원서를 교부받아 오는 24~27일까지 접수하게 된다. 내신성적 기준일은 12월13일이며, 중학교생활 전 과정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한 내신 성적으로만 전형을 실시한다.

올해는 1차 세 곳의 학교를 지원하고, 2차로 다섯 곳의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차에서 정원의 40%가, 2차에서 60%가 선발된다. 2차 지원에서도 배정이 안 된 학생들은 지원정보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 배정된다.

학교 배정 발표는 내년 2월4일 오전 11시 출신 중학교에서, 타 시·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광주시 교육청 고사관리실에서 각각 실시된다.

전남지역의 일반계 고교 모집 인원은 1만6천947명·전문계 9천339명 등 모두 2만6천286명이다.

지난 11일 실시된 일반계 고교 입시에는 1만6천465명이 응시했다. 합격자 발표는 비평준화지역 17일, 평준화지역 26일이다. 평준화지역 학교배정 발표는 내년 2월1일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국공립대 총장협 정기총회

전국 26개 주요대학교 총장들의 모임인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최현섭 강원대학교 총장)는 12일 오후 전남대학교 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2007년도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

는 16개 회원 대학 총장이 참석, 국회의 2008년도 국립대학 시설 확충비 삭감 움직임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08년도 예산(안) 중 국립대학교 시설사업비 200억원, 국립대학병원 시설사업비 및 운영비 60억원을 일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의 중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수시 2 최종합격 2,359명 발표

최저학력 미달 233명 탈락

전남대학교는 12일 2008학년도 수시 2학기 최종합격자 2천359명을 발표했다. 전남대 수시 2학기 1단계 합격자 가운데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 등으로 탈락한 인원은 233명(9.9%)으로, 지난해 229명(11.7%)보다 조금 늘었으나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합격자의 지역별 분포는 광주가 1천178명(49.9%)으로 가장 많았고 ▲전

남 786명(33.3%) ▲전북 180명(7.6%) ▲기타 지역 215명(9.1%) 등이었다. 전남대 수시 2학기 전형에는 2천592명 모집에 1만1천982명이 지원,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전남대는 오는 20~25일 인터넷을 통해 정시 가·나군을 모집한다. 정시 가군은 100%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고, 나군은 수능 성적(40%), 학생부 성적(50%), 면접(10%)을 합산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고려대 비교내신제 재수생에게도 적용

고려대는 2008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에서 재수생에게도 비교내신제를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제는 올해의 경우 학생부 성적표가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비교내신제는 수능성적에 연동해 내신성적을 매기는 제도다. 내신성적이나 내신이 불리한 특목고생·삼수생 등에 한해 적용돼 왔다. /연환수

광주 인기고교 왜 몰리나 했더니 폭력·담배·왕따 없애고 남녀공학 전환하며 쇄신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밝힌 '광주 일반계 고교 선지원율' 자료에 따르면 중3 학생들의 고교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린다. (본보 11월20일자 7면 보도)

2007학년도 경우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의 차이가 무려 22.7배였다. 도대체 왜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수년째 선호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송덕고(2.04대1·이하 2007학년도 선지원율) 최동현 교감은 "송덕고 1학년의 3월 모의고사 성적은 광주 중하위권"이라며 "학교폭력·담배·왕따 3무(無) 운동 등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 대입에서 좋은 성적을 낸 이유 같다"고 분석했다. 송덕고는 지난 4년간 44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다.

2007학년도 고입에서 선지원율 2위였던 서석고(1.80대1)의

경우 과거의 영화(榮華)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0년을 전후해 많은 선배들이 서울대 등 수도권 주요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이다.

정광고(1.62대1)는 6년 전 남학교이던 것을 공학으로 바꾸면서 전반적인 쇄신을 시도한 것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케이스. 정광고의 경우 2006학년도 대입에서 광주지역 자연계 수석을 배출했고, 2005년에는 광주 유일의 '골든벨' 수상자를 냈다.

국제고(1.61대1)의 경우 주변 환경과 인성 지도가 강점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민중기 교감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1년 내내 꽃피는 학교를 만들거나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깔고 분수를 설치하는 등 정서적 안정을 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올 대입 수능 등급제 혼신

동점자 처리 기준 당락 변수

올해 수능에서는 등급제 시행으로 동점자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돼 동점자 처리 기준이 당락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남대=논술고사를 치르지 않는 전남대의 경우 인문계열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수능 영역별 성적(언어·외국어)·수리(3개 영역)를 먼저 반영하고, 학생부 점수를 고려한 뒤 고교 최근 졸업(예정)자를 먼저 뽑는다. 그래도 동점자가 발생했다면 모집인원 유효성에 따라 전원 선발한다. 자연계열은 인문계열과 수능 영역별 성적 반영 순서가 '수리'·외국어·언어·탐구'인 점이 다르다. 예·체능은 수리영역 없이 '언어'·외국어·탐구' 순이고, 일반학부는 인문계열과 동일하다.

◇조선대=인문·자연·예·체능계열 공통적으로 수능성적 반영종점과 학생부 성적을 먼저 고려한다. 이후 인문계열은 면접과 수능 영역별 성적(언어·외국어)·수리·탐구, 자연계열은 면접과 수능 영역별 성적(수리·외국어·언어)·탐구 순으로 반영하며 예

체능계열은 면접 대신 실기점수와 수능 영역별 성적(언어·외국어)·탐구'이 기준이 된다.

◇서울대=수능 성적으로 1단계 전형에서 인문계 2배수, 자연계 3배수를 선발하는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2단계 전형에서는 학생부·논술·면접·구술 등이 전형요소가 된다.

◇연세대=인문계열은 '언어·수리나·외국어 총점(언어·외국어)·수리나·사회탐구(3과목) 총점' 순으로 보고 사회계열은 '언어·수리나·외국어 총점'·수리나·외국어·언어·사회탐구(3과목) 총점' 순으로 고려한다. 자연계열은 '수리·가·과학탐구(3과목) 총점'·수리·가·과학탐구(3과목) 총점'·외국어·언어' 순이다.

◇고려대=수능 우선 선발의 경우 수능 영역별 우선 순위에 따라 '외국어·수리·언어·탐구' 순이다. 수능 영역별 성적까지 동일하면 논술 성적, 이 경우까지 동일하면 모두 선발한다. 일반선발도 '외국어·수리·언어·탐구' 순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강풍 동반 비
흐리고 오후 한 두차례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리고 비	4~8℃
주요	흐리고 비	5~7℃
여안	구름 많음	5~8℃
수도	구름 많음	4~8℃
대구	흐리고 비	3~8℃
부산	흐리고 비	3~8℃
인천	구름 많음	3~9℃
대전	흐리고 비	4~9℃
전주	흐리고 비	4~7℃
충청	흐리고 비	5~7℃
경북	흐리고 비	2~7℃
경남	흐리고 비	0~7℃
제주	흐리고 비	4~5℃

서울·부산·대구·대전·전주·충청·경북·경남·제주

12월 13일
(음 11월 4일)
◇전국날씨

전남 폐교 656곳 전국 최다

심각한 저출산과 이농현상으로 문을 닫은 전남지역 폐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예산처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폐교수는 지난 1982년부터 지난 11월 현재 656개교다. 이중 초등학교가 628개, 중학교가 24개, 고등학교가 4개교이며 내년에 27개교가 폐교될 예정이다. 광주에선 6개교가 폐교됐다. 전국적으로는 경북이 두번째로 많은 558개교가 폐교됐으며, 경남 490개교, 강원 388개교, 전북 309개교, 충남 235개교, 충북 214개교, 경기 101개교, 인천 42개교, 대구 25개교, 울산 21개교, 대전 7개교, 부산 5개교, 서울 1개교 등이다.

이에 따라 전체 폐교수는 3천166개교로, 기존 1만4천452개교의 20.8%에 이르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의 경우 9천174개교 중 31.9%인 2천928개교가 폐교돼 3개교 중 1개교 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중학교는 3천122개교 중 2.4%인 76개교, 고등학교는 2천156개교 중 0.5%인 12개교가 각각 폐교됐다. 한편 전남지역의 폐교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개인이나 기관·단체가 사들이는 매각이 378개교로 가장 많고, 반환 3개교, 교환 10개교, 자체합용이 33개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청소년 성범죄 급증

가해자 연령도 낮아져

올해 들어 광주·전남 지역의 청소년 성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올 6월 말 현재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는 87건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 발생한 53건의 1.6배를 넘었다. 또 전체 성범죄 가운데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9.11%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6.86%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 가운데 중학생 나이인 14~16세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의 비율도 2002년 38.96%에서 올해 58.62%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설정하는 등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복통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었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충
- 유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
- 눈의 건조감과 안압, 이명증
- 황반 변성 등 노화 관련 질환 예방
- 피부, 근육, 뼈 건강, 미용효과, 미용효과
- 뇌졸중 예방
- 뇌졸중 예방 및 병기시 다른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 수축기전도도 개선
아연의 보충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에이스
www.kyuten.com
고객센터 080-022-2200